



남원 용성로타리, 이웃사랑 나눔 행사 펼쳐

남원시 죽향동은 27일 남원용성로타리클럽(회장 김정희)에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 전해달라며 생필품(환가액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1987년 설립된 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에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840만원)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희 회장은 "식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의 결식 예방과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대응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노경희 죽향동장은 "후원해 주신 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농민회, 소독 봉사활동 추진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장(김근식)은 전주시 농민회(회장 이경수) 회원 50여명이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및 조촌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시태 소강시까지 주 3회 소독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 농민회(조촌지회)는 방제차량2대, SS기(과수방제기) 3대, 분무기 및 충전용 소독기 10여대를 활용해 조촌동 버스정류장 60여개소 및 관내 마을안길, 주요 도로, 인도, 아파트 등 관내 구석구석을 소독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원세영 대학원생, 장학생 선정

‘울 아산 의생명과학 대학원 장학생’ ... 프리온 질환 원인 규명, 유전적 표지자 개발 연구 수행

전북대학교 원세영 대학원생(생리활성소재과학과 박사과정·지도교수 정병훈)이 '2020년도 아산 의생명과학 대학원 장학생'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산 의생명과학 대학원 장학생'은 우리나라 의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원세영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학술활동비 등 연간 2,000만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원받는다. 원 대학원생은 올해 시작하는 박사과정 동안 프리온 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 유전적 민감성 표지자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원 대학원생은 전북대 석사 과정 동안 제1저자 3편, 참여저자로서 1편의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국내 특허 1편과 학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



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원 대학원생은 올해 시작하는 박사과정 동안 프리온 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제와 유전적 민감성 표지자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원세영 대학원생은 "부모님과 정병훈 지도 교수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리고 많은 학문적 도움을 준 프리온 분야 유전학 연구실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아산 의생명과학 대학원 장학생' 선정으로 선도적인 프리온 연구를 수행하여 세계 공중보건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순창팔덕파출소, 맞춤형 치안서비스 호응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팔덕파출소(소장 곽을용)는 지난 26일 팔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장단 회의에 참석, 교통사고 예방 및 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와 빈집털이 절도예방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에 나선 곽을용 소장은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어르신들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모 착용 생활화 등 농기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출 방법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사례 설명, 빈집털이 예방법에 대하여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발로 뛰는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곽을용 소장은 "지속적인 범죄예방 홍보로 주민들이 안전한 팔덕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비전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애로사항 청취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26일부터 30명의 미얀마 유학생을 2주간 격리시키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감염예방 스케줄대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관계자는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들 전원에게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제공했다"며, "미얀마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베트남(발병국가)을 경유해 입국한 점"과 "전라북도의 관리대책을 준수하고, 지역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27일에는 비전대 세미나실에서 홍순직 총장, 최형주 행정처장, 양승원 국제교류원장, 김미선 글로벌선교지원센터장, 미얀마 루루벤, 켄너, 사라생컨, 킨다이 등이 참석해 격리시설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미얀마 루루벤(2학년 대표)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소시설 넓고 편의시설이 잘 구축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것을 먹고 싶은지 사전 조사해 학교에서 맞춤형 도시락을 제공해 줘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총장은 "감염예방 수칙 준수 및 체온이 37.5도 이상



일 때에는 즉각 보건실로 연락해줄 것"을 부탁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TV, 컴퓨터 인터넷 등 지원과, 본국의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자주 전화 드릴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홍 총장은 "2주가 지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는 250여명의 유학생이 있지만, 현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학생은 미얀마 30명, 베트남 3명, 중국 1명, 기타 국가 2명으로 분포된다. /장은성 기자



건협, 코로나19 극복 위한 후원물품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후원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손소독제 1,000개와 소독티슈 5,000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 선별진료소 및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년 11월 28일 등록(일간) (주)전주매일 200-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 · 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6855	임실지사 010-9642-2726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935	팔백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운동부 관리자 대상... 28일 '청렴도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28일 2층 강당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배정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 3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고,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편람 안내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프로그램 연수 ▲청렴교육 ▲학교운동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질의응답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실무와 관리 프로그램 이해를 제고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울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배정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성인식 개선을 통해 상호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1운동 101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인후3동(동장 이석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는 27일 회원 30여명과 함께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을 되새기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은 이날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충목로, 무삼지로 등 3km 구간에 위치한 상가에 직접 태극기를 게양하고,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깎이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회원들은 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등을 알려주며, 다가오는 3.1절 당일에 집집마다 국기게양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